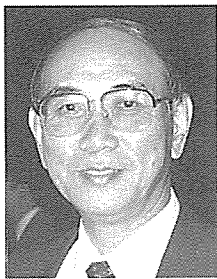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따라서 당뇨를 앓고있는 여러 환자들은 이 점에 유의해서 조기발견과 적절한 대책 및 치료로써 죽음 다음으로 무서운 실명을 예방하여야 되겠다.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치가 잘

시력변화 당뇨병 원인

특히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 혈당치의 변화가 수정체의 당알콜에 변화를 초래해서 3~4디옵터나 되는 굴절력의 변동을 일으킨다. 따라서 근시 또는 원시가 될 수 있고 근시가 되는 경우 이때까지 노안으로 돋보기를 끼던 사람이 돋보기 없이도 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되어 회춘했다고 기뻐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당뇨병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와 같이 갑자기 안경이 안맞든지, 돋보기 없이도 작은 글씨가 보이든지, 먼 곳 물체가 갑자기 흐리게 보이든지 하면 당뇨를 의심하고 곧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 보아야 한다. 또 이러한 굴절력의 변화는 당뇨가 잘 조절되어 있는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당뇨 때는 창상치유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방법으로는 소절개수술(小切開手術) 등이 바람직하다.

당뇨병성 백내장



李相旭

(서울강남병원 안센터 소장)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눈의 수정체(水晶體) 내에 오는 변화로서는 당 함유량과 수분 흡수 등의 장애로 3~4디옵터의 굴절력 변화를 일으켜 일시적으로 근시상태가 되고 시력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변화는 당뇨병이 잘 조절되면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

그밖의 중요한 변화로는 당뇨병으로 생기는 맑은 수정체가 뿌옇게 혼탁되어 시력을 잃게되는 당뇨병성 백내장이 큰 문제가 된다. 백내장은 중년 이후에 시력장애를 호소하고 안과를 찾는 환자의 1/3이나 해당되는, 실명의 큰 원인이 되는 병이다. 심한 약년성 당뇨병인 경우에 젊은 사람에게서 많이 생기며 갑작스럽게 성숙백내장을 일으키는 수가 있고 두눈에 발생하며(4~16%), 수정체의 전후낭하에 공포(空胞)가 많이 생긴다. 급성으로 수주 내에 수정체는 완전히 혼탁된다. 점차 설편(雪片)모양으로 수정체 피질 전층에 퍼지고 급기야는 전체가 우유빛으로 되어 시력장애가 심하게 온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는 드물고 가장 흔한 것으로 당뇨병이 없는 상태에서 보다 훨씬 더 초기에 나타나고 또한 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즉 1초간에 4만번 진동하는 초음파를 사용하여 보통 백내장 수술 때와는 달리 눈에 아주 작은 절개(3mm)를 가한 다음 기계 끝을 눈 속에 삽입하여 단단한 수정체의 핵(核)을 물처럼 액화(液化)시킨 다음 흡인함으로써 수술을 마친다. 이런 방법으로 백내장 수술을 하면 상처가 적으니까 치유도 빠르고 수술 후 시력교정도 좋다. 특히 당뇨가 있어 창상의 치유나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는 더욱 바람직하다.

끝으로 당뇨병성 백내장은 신체전체를 침범하는 질병과정중 나타나는 증상으로, 환자에게도 병변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각종 최신 의료장비와 정밀한 관찰을 통한 끈기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⑤7

다 당뇨병에 있어서의 눈의 합병증은 당대사(糖代謝)장애에 의할 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또 이들 합병증들은 적절하게 당이 조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병 발병 후 10여년이 지나면 발생할 수가 있다.

당뇨 발병 10년후 발생

현재 여러 가지 당뇨에 대한 치료의 발달로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생존의 예후(予后)는 현저하게 연장되었으나 당뇨병성 망막증(網膜症)이나 당뇨병성 백내장을 비롯한 다른 합병증은 현저히 증가하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당뇨병은